괴테클럽 독서 감상문

작성자	최지윤	**토론일**	5/27
도서명	모래사나이	**저자**	에른스트 호프만
별점	3/5		
만족스러운 점과 아쉬운 점	코펠리우스에대해서 나타니엘이 느끼는 공포가 생생하게 서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한줄평	낭만주의의 대표작으로 꼽히고, 환상과 실제가 모호한 것 같다.		

기억에 남는 표현이나 문장들

나타니엘이 들어오라고 외치자, 문이 열리면서 코폴라의 흉측한 얼굴이 나타났다. 나타니엘은 내면 깊은 곳에서 전율을 느꼈다. (중략) 나타니엘은 자신이 어린아이처럼 환영과 같은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에 수치심을 느꼈다. 47p

감상

편지로 시작하는 호프만의 모래사나이에서 대학생 나타니엘이 어린시절 겪었던 끔찍한 체험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을 겪게 된다. 나타니엘은 어린시절 늙은변호사인 코펠리우스로 인해 눈을 빼앗아 가는 공포를 가지게 되고, 나타니엘의 아버지는 폭발사고로 죽게된다. 이후 시간이 흘러 대학생이 되고 코폴라라는 행상을 만나게 되고, 그가 공포의 대상인 코펠리우스라고 모래사나이라고 믿고 그가 자신의 인생을 파멸시킬 것이라 생각한다. 읽는 중에도 사실인지 그의 약혼자인 클라라의 말처럼 망상인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게 됐다. 또 모래를 뿌려 아이들의 눈을 피투성이로 만든 다음 튀어나오는 눈을 앗아가는 모래사나이에대한 묘사가 생생해 읽는 독자로 하여금 섬뜩하게 했다. 나타니엘에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트라우마의 공포가 얼마나 큰지 실감하게 된다. 트라우마로 인해 외부의 현실과 내부의 환상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로 보여 안타까웠다.

